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Investigation of Safety Attitude for Summer East-Coast Beach Visitors-

권영국
이상민

ABSTRACT

해마다 여름철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그와 비례하여 해수욕장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실태나 피서객의 안전의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 피서객들이 어느 정도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와 과연 그들이 자신들이 방문한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이나 관리 상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보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를 개별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설문 기간은 1999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인 속초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경포대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의 4곳의 해수욕장에서 600 여 개의 설문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SAS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삼기 위해 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차후 연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한 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요즘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은 과거 80년대에 비해 최고 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안전사고도 피서객의 증가폭에 따라 비례하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시·군 별로 매년 여름철마다 수상안전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강릉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자격 안전요원 확보
2. 인명 구조장비 확보
3. 수상 안전 유도 시설 설치
4. 야간 취약 시간대 안전망 구축
5. 해수욕장 상해보험 가입
6. 수상 안전 홍보 활동 강화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책들은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충분히 안전성이 있어야 피서객들은 안심을 하고 가족들과 피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난 5년간 수상안전 예방 대책과 안전사고 통계 자료(강원도 해양수산 출장소)와 99년 여름에 실시한 600여 개의 설문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SAS를 사용해 조사, 분석해 보았다.

- '94~'98년까지의 수상안전 예방대책과 안전 사고 통계자료 분석
- 피서객들이 어느 정도의 안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이나 안전 관리상태에 대한 피서객들의 관심도와 만족도
- 구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의 개별 면접을 통한 조사
-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 외국의 사례와 비교

본론

1. 연도별 동해안 해수욕장 수상 안전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분석 ('94~'98)

동해안은 모두 94년은 4개시(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와 4개군(고성군, 양양군, 명주군, 삼척군)으로 나뉘어 졌다가 95년에 4개시(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와 2개 군(양양군, 고성군)으로 개편되었다.

이들 각 시, 군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강원도 해양수산 출장소는 6가지의 안전예방대책 항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상안전요원 · 경고판안내
- 망루대 설치 · 무인구조 장비
- 인명구조선 확보 · 기타 구조 장비

각 표의 수치는 이들 6개 행정 구역 94개 해수욕장의 합이다. 그림 1과 표 1은 해수욕장 안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요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지만 정작 전문요원의 확보율 보다 보조 요원 확보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 전문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숫자적 의미는 크게 나타나지만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전문원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다. 표 1을 분석해보면 연 평균 174.8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94개 해수욕장에 약 1.86명의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한 결과가 된다.

표 1. 연도별 수상안전요원 확보 현황

	수상 안전요원 확보			유자격자 비율	무자격자 비율
	계	유자격자	보조자		
'94	226	149	77	65.9	34.1
'95	346	169	74	48.8	51.2
'96	362	172	190	47.5	52.5
'97	327	194	133	59.3	40.7
'98	345	190	155	55.1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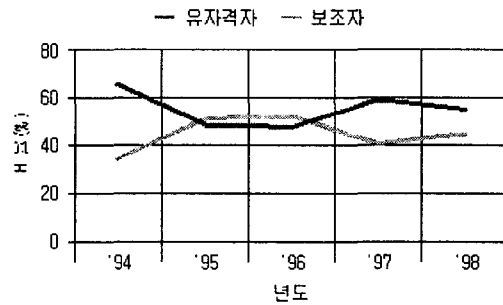


그림 1. 유자격자와 보조자의 연도별 증가율

그러나 대부분의 안전요원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 해수욕장에 배치 되고 작은어촌 해수욕장의 경우 안전요원이 전무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는 그리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표 2. 연도별 익사사고 발생 현황

	익사사고 발생 현황			익사율	구조율
	발생	구조	익사		
'94	438	429	9	2.1	97.9
'95	118	111	7	5.9	94.1
'96	190	185	5	2.6	97.4
'97	277	269	8	2.9	97.1
'98	216	209	7	3.2	96.8
평균	247.8	240.6	7.2	3.2	96.7

연도별 익사자 발생 현황(표 2)을 보면 1994년의 익사율이 2.1%였던 것에 반해 1998년에는 3.2%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5년간 평균 사고자수는 247.8명이고 평균 익사자는 7.2명, 평균 익사율은 3.2%이고 평균 구조율은 96.7%이다.

여기서 안전요원의 수와 익사사고자 수와의 상관관계를 SPSS를 이용하여 구하여 보면 안전요원 숫자의 평균은 321.2명이고 이때 표준 편차는 54.64이다. 사고자수의 평균은 247.8명이며 표준편차는 120.65이다. 상관계수(r)은 -0.92로 매우 유의함(높은 역상관관계, 그림2 참조)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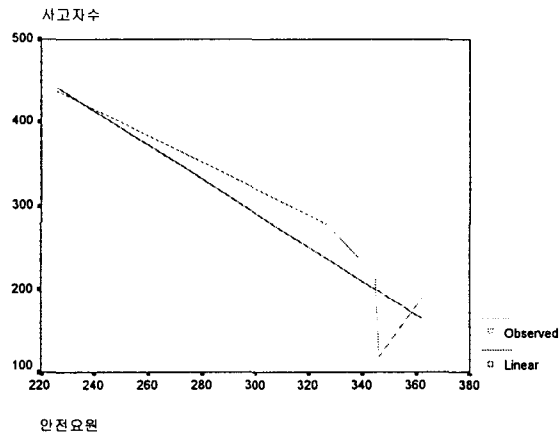


그림 2. 안전요원과 사망자수의 회귀그래프

사고 원인별(표 4)로는 수영미숙 사고가 전체의 65.5%(459건)로 가장 많은 원인이 되었다. 이는 사고 대부분이 수영미숙이고 따라서 안전의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수영 미숙자에 대한 안전 대책일 것이다.

표 4. 익사사고 원인별 현황

	사고 원인별 현황			
	수영미숙	음주	심장마비	기타
'94	272	102	5	59
'95	49	5	1	2
'96	133	8	6	43
'97	2	3	1	2
'98	2	3	1	1
계	459	121	14	107
비율	65.5	17.3	2.00	15.2

연령별 사고현황(표 5)을 보면 전체 사고의 72% (517건)를 10대와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표 5. 사고 연령별 현황

	연령별 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94	160	144	65	34	35
'95	8	51	15	.	2
'96	102	40	35	6	7
'97	2	5	1	.	.
'98	1	4	1	1	.
계	273	244	117	41	44
비율	37.9	33.9	16.4	5.7	6.1

이러한 조사된 통계결과를 볼 때 향후 해수욕장 안전 사고 예방의 주안점은 수영미숙으로 인한 익사사고 발생의 주 연령층인 10대와 20대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인명구조원의 꾸준한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수욕장 인명 구조요원 양성 기관의 필요가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다.

2. 외국의 사례

익사사고(Drowning)는 미국에서 3번째로 높은 사고 원인이며, 5~44세의 우발적 사망으로는 2번째로 높은 원인이다. 남자 익사자가 여자 익사자보다 5배나 높으며, 보트에 의한 익사사고는 남자가 14배나 높다.

2.1 LA지방 인명구조대

LA지방 인명구조대(Los Angeles County Lifeguard)는 해변 31마일과 해안선 70마일을 감시하고 있다. 담당 해변에는 사우스베이, 베니스, 산타모니카와 말리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인근 섬에 대한 구조 보트 서비스도 하고 있다.

LA의 인명구조본부에는 111명의 정식 직원과 550명의 계절 인명 요원이 있다. 911(우리 나라의 119) 시스템의 일부로써 24시간 비상구조대도 가동하고 있다. LA지방 인명구조대는 해변감시(bay watch)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전문인력들에게 여러 종류의 구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학교 방문이나 안전 엑스포 등을 통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슬라이드와 비디오 테이프 등도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표 6. LA 지방의 연도별 익사사고 발생 현황

	익사사고 발생 현황			익사율
	발생	구조	익사	
'83	30,617	27,487	9	0.03
'84	27,853	24,697	5	0.02
'85	21,121	18,724	3	0.01
'86	18,203	16,507	4	0.02
'87	17,879	16,108	7	0.04
'88	15,974	14,243	3	0.02
'89	20,359	18,464	4	0.02
'90	20,462	18,386	3	0.01
'91	14,779	13,666	3	0.02
'92	22,901	21,139	2	0.01
'93	20,811	19,363	2	0.01
'94	18,686	16,889	3	0.02
'95	15,326	13,775	4	0.03
'96	22,930	21,315	1	0.00
'97	28,117	26,376	1	0.00
합계	316,225	287,139	54	0.02

표 7. '83~'97까지 평균 익사사고 발생현황

	익사사고 발생 현황			익사율	구조율
	발생	구조	익사		
15년간	21,069	19,143	4	0.02	90.9

표 6과 표 7은 미국 California주 Los Angeles 시에 있는 인명구조대에서 만든 자료이다. 방문자는 15년 동안 평균 57,081,956.13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찾아도 사고율은 일년에 1~9건 정도이다. 구조율은 90.9%이고 익사율은 0.02%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방문객이 많지만 익사율이 낮은 원인은 그들 관광객의 의식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의 전문적인 구조 방법과 훈련 체계, 구조요원의 수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미국인명구조협회 (USLA)

미국인명구조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해변인명 구조원과 해양구조원의 전문 협회이다. 이 협회는 대중 교육과 국가 인명구조기준, 훈련 프로그램과 강도 높은 인명구조요원의 훈련을 통해 물과 관련된 환경에서의 사망률과 부상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설문 방법

3.1 설문 대상

설문대상은 강원도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에서 그 곳으로 피서를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다.

샘플 수는 600명이었고 샘플의 연령층은 10대에서 50대까지의 남녀였다. 설문 시간대는 10시~18시였다. 기타로는 그 지역주민은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 설문 절차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1:1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관광객이 해당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의 현황을 모를 경우 미리 조사한 데이터를 알려주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였다.

3.3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주제의 2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 피서 전 가족 안전의 고려 여부
- 안전시설 인식여부
- 안전요원수의 적정성
- 안전시설 만족수준
- 비상 통신 수단 사용가능 여부
- 해수욕장 주변 위험요소 제거 수준
- 안전사고 목격 여부
- 주변 시설 위생 관리
- 안전관리 상태 평가

4. 데이터 분석

총 600개의 설문 중 결손 설문인 9개를 제외한 591개(속초해수욕장 151개, 낙산해수욕장 185개, 경포대해수욕장 145개, 망상해수욕장 110개)의 설문지를 SAS로 분석하였다.

4.1 설문 응답자 분석

(1) 설문응답자의 지역 분포

표 8에서 보면 설문 응답자중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의 77.9%(46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 설문 응답자의 성별 분포

표 9에서 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370명, 여자 221명이며 남자의 비율이 62.6%이고 여자의 비율이 37.4%이다.

표 8. 지역별 현황

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	274	46.4
경기	186	31.5
강원	43	7.3
인천	33	5.6
대전	14	2.4
충북	11	1.9
부산	7	1.2
경북	7	1.2
경남	7	1.2
충남	7	1.2
대구	1	0.2
전북	1	0.2
합계	591	100

표 9. 성별 분포

성별	인원(명)	비율(%)
남	370	62.6
여	221	37.4
합계	591	100

(3) 설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표 10에서 연령별 분포는 20대, 30대가 전체의 75.1%(444명)이다.

표 10. 연령별 분포

연령	인원(명)	비율(%)
10대	6	1.0
20대	237	40.1
30대	207	35.0
40대	124	21.0
50대이상	17	2.9
합계	591	100

4.2 문항별 분석

(1) 사전 가족 안전에 대한 고려여부

표 11에서 설문 전체 인원중의 79.2% (468명)가 출발 전에 가족들의 피서지 안전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표 11. 사전 가족 안전에 대한 고려여부

	인원(명)	비율(%)
예	468	79.2
아니오	123	20.8
합계	591	100

(2) 인명구조원과 안전시설 인식여부

표 12에서 인명구조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78.8%(466명)의 사람들이 응답했으며 안전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67.7%(400명)로 나타났다.

표 12. 인명구조원과 안전시설 인식여부

		인원(명)	비율(%)
인명구조원	예	466	78.8
	아니오	124	21.0
합계		590	99.8
안전시설	예	400	67.7
	아니오	191	32.3
합계		591	100

(3) 안전사고와 안전요원 관련 사항

표 13에서 안전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13%(77명)의 사람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안전요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중 4.2%(25명)였다.

현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의 수가 적절한가란 질문에 대해 전체 설문대상인 75% (443명)의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안전사고와 안전요원 관련 사항

		인원(명)	비율(%)
안전사고 목적	예	77	13.0
	아니오	508	86.0
합계		785	99.0
도움받은 경험	예	25	4.2
	아니오	564	95.4
합계		589	99.7
안전요원수 의 적정성	충분	137	23.2
	불충분	443	75.0
합계		580	98.1

이는 동해안 해수욕장 수상 안전사고 예방대책 에서 연평균 174.8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94개 해수욕장에 약 1.86명의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사람들의 생각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안전 관련 시설 만족 수준

표 14에서 안전시설 만족수준에 관련된 문항 중에 해수욕장안전시설 만족스러운가의 질문에 68.7%(406명)의 사람들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해수욕장 주변 백사장 등과 같은 곳의 위험물 제거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5%(332명)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숙박지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서 70.1%(414명)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동해안의 대규모 해수욕장은 넓은 평야 지대이고 지역 발전이 계속되어 모텔과 콘도, 현대식 주택이 많이 들어서이다.

(5) 비상 연락 가능여부

표 15에서 휴대폰의 기종과 이동 통신 서비스 회사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81.6% (482명)의 응답자가 휴대폰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고 공중전화의 경우 해수욕장 규모에 비해 그 수가 작고 또한 한곳에 몰려있어 사용이 불편하다고 57%(337명)이 응답했다.

파출소나 안전요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 52.1%(308명)의 사람이 찾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파출소나 안전요원의 위치에 대한 홍보가 없고 또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서이다.

표 14. 안전 관련 시설 만족 수준

		인원(명)	비율(%)
안전시설 만족도	예	178	30.1
	아니오	406	68.7
합계		584	98.8
주변위험 요소제거	예	322	54.5
	아니오	261	44.2
합계		583	98.6
숙박지 안전성	예	414	70.1
	아니오	174	29.4
합계		588	99.5
해수욕장 안전성	예	429	72.6
	아니오	158	26.7
합계		587	99.3

표 15. 비상 연락 가능여부

		인원(명)	비율(%)
휴대폰	예	482	81.6
	아니오	94	15.9
합계		576	97.5
공중전화	예	250	42.3
	아니오	337	57.0
합계		587	99.3
파출소 안전요원	예	282	47.7
	아니오	308	52.1
합계		590	99.8

(6) 위생관리 상태

표 16에서 보면 위생과 관련된 질문에서 해수욕장 해변의 청결에 관한 질문에서 53.1%(314명)의 응답자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음식점의 청결에서는 48.7%(288명)의 응답자가 비교적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16. 위생관리 상태

		인원(명)	비율(%)
해수욕장	예	257	43.5
	아니오	314	53.1
합계		571	96.6
음식점	예	288	48.7
	아니오	283	47.9
합계		571	96.6
쓰레기처리	예	389	65.8
	아니오	197	33.3
합계		586	99.2
샤워장	전혀나쁘다	42	7.1
	조금나쁘다	180	30.5
	보통이다	309	52.3
	조금좋다	30	5.1
	아주좋다	2	0.3
합계		563	95.3
공중 화장실	전혀나쁘다	84	14.2
	조금나쁘다	200	33.8
	보통이다	241	40.8
	조금좋다	39	6.6
	아주좋다	5	0.8
합계		569	96.3

쓰레기 버리는 곳이 별로도 있는가란 질문에 65.8%(389명)의 응답자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용량이 적어 쉽게 넘치고 터져서 비위생적이란 응답을 했다.

샤워장의 청결에 대해서는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89.9%(531명)이고 공중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해서는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중 88.8%(525명)에 달했다.

(7)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전반적 평가

표 17에서 해당 해수욕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했을 때 전체응답자 중 89.9%(531명)의 사람들이 보통 이하에 응답했다.

표 17.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인원(명)	비율(%)
전혀 나쁘다	42	7.1
조금 나쁘다	180	30.5
보통이다	309	52.3
조금 좋다	30	5.1
아주 좋다	2	0.3
합계	563	95.3

결 론

이번 통계 자료 조사와 설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나라 해수욕장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조사
- 안전요원의 전문화와 확충.
- 주변 위생에 대한 개선.
- 비상연락 수단의 확충과 홍보
- 안전 관리 시설에 대한 부족과 개선
- 비상 연락 수단의 강화
- 10대와 20대의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위의 지적된 문제점들은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들이고 안전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분석·대책 수립을 소홀히 하게 되면 매년 적지 않은 생명을 잃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모두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설문을 통해 안전에 위험이 되는 정확한 요소를 찾아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사고 요인분석과 안전 시설의 기준을 정하여 우리나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시급하다.

토 의

가장 시급한 것은 통계의 정확성과 사실성이다. 단순한 사고의 집계가 아닌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항목을 전담 기관에서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이후 유사한 조사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전문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라면 해병대를 제대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보조요원은 아르바이트나 경찰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의 예를 들면 Coast Guard나, Life Guard와 같은 전문적인 공공 기관이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일년 내내 여름인 그곳 특성으로 인해 항상 그들에 대한 수요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사기업에 속한 인원이 아니라 주 정부나 시에 속해있는 공무원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우리 나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그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형식을 취하여 경찰의 직무와 구조요원의 직무를 겸하게 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일 것이다.

안전 관련 장비·시설 인식과 만족에 관해서는 깊은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빠른 접근을 위해 교대로 수심 표시 부표 주변에 보트를 대기시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기타 다른 장비는 관리 사무실 주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 주변에

적당한 개수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위치시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비상연락 수단은 보편화된 휴대폰의 불통지역을 제거하고 공중전화의 집중이 아닌 여러 곳으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파출소나 의무대 등은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방송을 통하여 자주 안내하고 수시로 순찰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끝으로 구체적이고 쉬운 해변 안전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피서객들이 스스로 안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LA 지방 인명구조대와 미국 인명구조협회(USLA)의 해변안전지침을 예를 들어 보겠다. LA지방 인명구조대에서 말하는 안전 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항상 망루대 주변에서 수영하고 절대 혼자 수영하지 말 것.
- ② 바다나 해변의 안전 상태를 인명구조 요원에게 문의할 것.
- ③ 알다고 절대로 뛰어들지 말 것. 항상 발부터 넣는 것을 잊지 말 것.
- ④ 부두나 바위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경고 표시를 준수할 것.
- ⑤ 해변과 평행한 방향으로 헤엄칠 것.
- ⑥ 당신이 떠나기 전에 파놓았던 웅덩이를 매울것.
- ⑦ 쓰레기를 흩어지게 버리지 마시오.

해변 청소원이 그것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 ⑧ 그늘막이나 모자를 사용하여 당신 스스로 태양으로부터 보호할 것.
- ⑨ 다른 피서객을 존중하고 항상 해변에서의 매너를 지킬 것.
- ⑩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너기 전에는 항상 주위를 살필 것.
- ⑪ 만약 당신이 또는 일행중의 누군가를 잃어 버렸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인명구조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그리고 USLA의 안전지침은 아래와 같다.

- ① 인명구조원 주위에서 수영할 것.
- ② 수영하는 방법을 배울 것.
- ③ 절대 혼자서 수영하지 말 것.
- ④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지 말 것.
- ⑤ 음주상태로 헤엄치지 말 것.
- ⑥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급적 공기튜브와 같은 놀이기구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보트를 탈 때는 구조 자켓을 착용할 것.
- ⑧ 바닥의 깊이를 모를 때는 머리부터 다이빙하지 말 것.

그리고 그날의 해변 안전 상태를 멀리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식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골드코스트라는 해수욕장에서는 아래 그림 3과 같은 표식으로 이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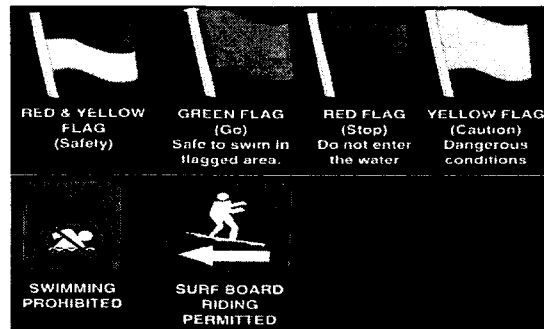


그림 3. 골드 코스트의 안전 경고 표식

참고문헌

1. 강원도 해양수산 출장소, '94~'95 동해안 해수욕장 수상 안전사고 통계, 1999.
2. Gold Coast Homepage (<http://www.reflections.com.au/goldcoast/index.html>)
3. Los Angeles County Lifeguard Homepage
(<http://pen2.ci.santa-monica.ca.us/laco-lifeguard>)
4. USLA Homepage (<http://www.usla.org>)